

여론 조사 데이터로 보는 아시아 청년들의 대외 인식

소노다 시게토 지음, 유지아·윤현명 옮김, 『아시아의 국민감정』(경인문화사, 2024)을 읽고

윤석정 국립외교원 외보안보연구소 연구교수

I. 들어가며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펼치는 무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부상하는 중국과 그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 때문에 양국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스파르타와 아테네처럼 투키디데스의 함정(Allison, 2017)에 빠질 것인가? 경제 침체에 빠진 중국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 미중 관계가 위험 구간(Beckley and Brands, 2022)에 진입할 것인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관계는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이다.

그리고 미중 경쟁의 이면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존재한다. 2010년 중국이 일본을 GDP 면에서 역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에 오른 이후 일본의 대중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대만 유사(有事)가 곧 일본 유사(有事)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일본이 공세적인 안보 정책을 취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윤석정, 2023: 15). 2022년에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반격 능력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 및 유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은 미중 경쟁이라는 작금의 국제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간 국제관계론은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주요 변수로 상정했다. 그렇지만 일찍이 싱어(Singer, 1960: 460-461)는 정책을 결정하는 인간을 국제 분쟁의 변수로 주목하며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점차 여론 조사 데이터를 입수하기 용이해지면서 국제 관계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인간의 범위는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 소노다 시게토 교수의 『아시아의 국민감정』은 아시아 일반 국민의 대외 인식에 주목하여, 이들이 국제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 이념 및 가치가 아시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론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II. 책의 주요 내용

책의 서장에서는 국제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인식을 연구 주제로 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집합체로서 의인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국가 그 자체가 대외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노다 교수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소노다 교수가 말하는 인식의 주체로서 국민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가? 소노다 교수는 중국 샤먼대학 장비우의 분류를 빌려 대외 인식의 주체는 ① 단일 주체로서 국가, ② 최고 지도자, ③ 외교당국자, ④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⑤ 일반 대중이 있다고 상정한다. 여기서 소노다 교수는 ④, ⑤에 주목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여론 형성에 있어 ④, 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론 조사 관련 각종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국민에 대한 정의에 이어 소노다 교수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5개의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프레임 가설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프레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상은 위협적인가, 기회의 확대인가?”,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존 질서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뿐인가?”와 같이 현상을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는 경향

을 말한다. 둘째, 상호예기(相互豫期) 가설이다. 상대가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도 자신들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라는 심리 역학을 뜻한다. 셋째, 소프트파워 가설이다. 특정 국가의 대중문화와 언어를 습득한다면 그 국가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고 매력을 느끼는지 검증한다. 넷째, 접촉가설이다. 특정 국가에 친구와 지인이 있어 인적 접촉을 밀접하게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진다는 가설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포스트 냉전 가설이다. 이는 냉전 시대에 형성된 진영 논리적 사고가 지속된다는 가설이다.

5개의 가설을 토대로 소노다 교수가 실시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대에 들어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는데, 속도, 타이밍, 영향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특히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중국 경제의 성장이 이익이 된다”는 ‘경제적 혜택 프레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은 발전하고 있지만 아시아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평화적 부상 프레임’을 두고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또한 중국어를 이해하여 중국의 국내 사정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파워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상호간의 응집성은 낮게 나오는 괴리가 존재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중심성’을 제시하는 등 미중 경쟁 속에서도 역내 협력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에 적극적이다. 반면에 사회적 결합을 측정하는 항목인 ‘아세안의 다른 국가가 자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아세안 지역 출신의 지인 및 친구의 유무’, ‘아세안 역내로 유학 및 취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

셋째, 동아시아의 경우 동질성이 높은 이웃 국가 간에 반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면 이웃 국가 간에는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한일 간에는 상호예기 가설이 성립된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민주화를 거치면서 중요한 타자로서 일본에 대한 접근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대만, 홍콩, 중국 간에는 접촉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만과 홍콩은 중국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결합을 보이지만 그것이 중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넷째,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국가와 지역별로 의견이 나뉜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을 실감하고 있지만 유학, 대중문화, 취직의 면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섯째, 일본의 경우 아시아에 대한 냉전적 사고가 남아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 북한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낮은 평가를 내리면서 대만 및 영어권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아시아가 ‘지저분하다/정체됐다’고 답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일 감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이다.

여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냉전적 사고 방식이 지속되었다. 팬데믹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본의 냉전적 사고는 한국과 대만의 방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드러났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대만의 대응이 일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19.6%의 일본인이 ‘좋다’고 답했고, ‘좋은 편이다’는 31.7%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좋다’가 2.6%, ‘좋은 편이다’가 8.2%에 그쳤다. 반면에 ‘나쁘다’는 28.9%, ‘나쁜 편이다’는 20.9%였다.¹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대만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일본인들의 인식이 팬데믹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마다 현실과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타국의 국민감정에 대한 존중과 상호 이해를 강화할 필요성을 저자는 제기하면서 저서를 마무리한다.

¹ 소노다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방역이 일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방역을 일본이 긍정적으로 참고, 모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인다.

III.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의 과제

그간 저자는 Asia Barometer (2003-2008), Asia Student Survey (2008-2018) 등의 데이터 조사 연구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 『중국 임팩트: 근린에서 본 「대두」와 「위협」(チャイナ・インパクト: 近隣からみた「台頭」と「脅威」)』(2018), 『중국 리스크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일한대 기업의 도전(チャイナ・リスクといかに向き合うか: 日韓台の企業の挑戦)』(2016), 『연계와 이반의 동아시아(連携と離反の東アジア)』(2015)를 발간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여러 굵직한 연구 업적을 남겨왔다. 이번에 소노다 교수가 발간한 『아시아의 국민감정』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평가,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평가 등에 관해 방대한 여론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정교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국민들의 대외 인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시노다 교수는 ‘아시아학생조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시아학생조사’는 와세다 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아시아 6개국 상위 12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이후, 도쿄 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동양학연구정보센터의 주도로 2차 조사(2013~2014), 제3차 조사(2018~2019)가 실시되었다. 첫 조사는 일본과 아시아 6개국(한국, 중국 베이징,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대상 범위를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아시아학생조사’를 활용한 시노다 교수의 연구는 아시아 대학생들의 대외 인식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시노다 교수는 이들 아시아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여론 대표성을 가진다고 본다. 시노다 교수도 언급했듯이 아시아의 대학생들은 장비우의 분류법을 적용하면, ④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⑤ 일반 대중의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대학생들은 향후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일반 대중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은 일반 국민의 대외 인식을 조사하는 데 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소노다 교수의 주장이다.

시노다 교수는 대외 인식 조사 및 연구에서 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포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엘리트에 포함된 아시아 대학생

들의 대외 인식이 얼마나 모국의 일반 대중과 동조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대외 정책을 둘러싼 엘리트와 대중 간의 탈동조화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외 정책은 전략적 엘리트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외 관계에서 전략적 엘리트는 정책 관련 자원을 통제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접근하여 외교안보에 대한 담론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대외 정책에 대한 엘리트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일반 대중들은 핵무장을 열렬하게 지지한 반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다수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처럼 엘리트들은 현안에 대한 더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과는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Cha, 2024).

필자가 후속 연구를 위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면 시노타 교수의 연구 대상인 아시아 대학생들을 여론 조사 연구에서 분류하는 엘리트, 즉 학계의 학자, 싱크 탱크 전문가, 기업의 의사 결정자, 전현직 공무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관점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는 아시아 대학생들의 인식과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서 이들 대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그리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규범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외 정책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아시아 대학생 간에는 같은 범주에 넣기에는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아시아 대학생들의 인식은 청년 세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시아 대학생들의 인식이 일반 대중과 얼마나 동조화되어 있는지, 20대의 청년 시절에 형성된 인식이 향후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후속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특정 세대의 대외 인식에 대한 특수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소노다 교수의 연구가 다루고 있는 아시아 대학생들의 대외 인식에 코호트 효과와 기간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정 세대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코호트 효과는 특정 세대가 경험한 고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그 세대 특유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함으로써 연령이 높아져도 그 성향이 지속된다고 지적한다. 한편 기간 효과는 어떠한 특정 시기에 연

령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향을 말한다.

소노다 교수는 퓨리서치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속도, 타이밍, 영향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간 효과의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국가마다 중국 관련 부정적 평가를 증대시킨 정치, 사회, 문화적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변화하는 대중 인식의 궤도를 추적해나가는 것이 후속 연구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어서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건강 위기를 가져오면서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했다. 퓨리서치센터의 통계를 보면, 2012년경부터 중국에 대한 한국의 비호감도는 50% 초반대에서 37%까지 내려갔으나, 2016년의 사드 보복 이후 61%로 치솟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75%에 달하게 되었다. 사드와 코로나19 외에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이슈도 한중 간의 충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인권 문제 또한 한국인의 중국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문영, 2023: 296-297).

즉,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대중 인식이 악화되는 기간 효과가 발생했다. 주목할 부분은 2020년대에 들어와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이 기성세대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불투명성, 방역 관련 인권 유린 상황 등이 전해지면서 한국의 청년 세대 특히 20대들의 반중 인식이 강화되었다. 다른 원인으로 중국 인터넷 공간의 험한 정서, 중국 젊은 세대의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도 거론된다(이동규·강충구, 2023: 1-2). 한국 국민들의 대중 인식 악화라는 기간 효과 속에서 악화의 정도를 두고 20대와 다른 세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과연 한국 청년 세대들의 부정적인 대중 인식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코호트 효과 수준에 달한 것인지, 이는 미래 한중 관계의 토대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냉전 체제의 사고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목을 끈다. 냉전 체제의 사고방식이란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탈냉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냉전 시대 때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가설이다. 앞서 정리했듯이 소노다 교수는 일본은 한국, 북한, 러시아를 낮게 평가하고 미국, 호주를 높게 평가하는 등 냉전 체제의 사고방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았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일 동맹이 여전히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노다 교수가 지적한 냉전 체제의 사고 방식에는 냉전기에 형성된 일본의 국제정치적 위치와 그에 따른 대외 정책 노선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정치학자 코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이지만 정치, 경제적 관계의 축은 서구 문명권에 두고 있는 미묘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코사카에 따르면, 일본이 지리적, 문화적으로는 ‘극동(極東)’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극서(極西)’에 속한다는 것이다(高坂, 2008). 코사카는 냉전기 일본의 현실주의 외교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의 일본 극서론은 왜 일본 국민들이 비서구 문명의 아시아 국가들을 저평가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 국민들의 대외 인식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은 국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소노다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일본에서는 질서에 대한 도전자 프레임, 취약국가 프레임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다. 여기에는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일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 2010년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중일 관계는 갈등 관계로 전환되었다. 동아시아 외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2010년의 중일 역전은 중국이 청일 전쟁에서 패한 이후 다시 찾아온 세력 전이의 순간이다. 이러한 와중에 2010년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는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구체적인 정치, 사회적 경험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영토와 안전보장 문제에서 공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일 간의 국력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평가는 기간 효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들어 중국 국민들의 대일 인식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일본의 언론NPO와 중국의 국제전파집단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인의 87%가 일본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답변, 2023년의 62.9%에 비해 24.8% 오른 수치가 나왔다. 이는

센카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3년의 9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은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도 발견된다. 전년도 2023년에는 중국인의 60.1%가 “중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2024년의 조사에서는 26.3%에 그쳤다. 2013년에는 중국인의 72.3%가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言論NPO, 2024).² 그만큼 중국인들의 대일 인식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조사라 할 수 있다.

중일 관계에서 경쟁과 갈등이 구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의 조사결과 는 주의를 요한다. 기존에는 일본에 대해 비호감을 갖더라도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균형감각이 발휘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균형감각은 무너지고 중국인의 대일 인식은 부정 일변도이다. 중국 측의 여론 조사 결과는 2010년부터 시작된 중일 갈등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다. 기간 효과의 차원에서 중국인의 대일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 정책이 중국인들의 대일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2023년의 어떠한 정치, 사회, 문화적 경험을 통해 중국인의 대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V. 맺음말

소노다 교수는 아시아 역내 연구기관과 언론에서 여론 조사 데이터를 적극 수집하고 확산하면서 아시아는 ‘데이터의 오아시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의 대외인식 또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 남녀, 계층, 좌우 정치 성향 등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에 접근하고, 이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에 관한 연구도 같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 및 국가 중심의 경쟁 관계에 주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낮은 자세가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시기라 하

² 같은 조사에서 일본인의 89%가 중국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답했고, 중일 관계는 67.1%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3년 조사에 비해 전자는 3% 하락, 후자는 2% 상승한 수치이다.

겠다.

투고일: 2025년 3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일

참고문헌

- 윤석정. 2023.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정책: 평가 및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2023-42.
- 이동규·강충구. 2023.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아산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2023-22.
- 이문영. 2023.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국내 언론 보도의 사실 정합성 검토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5-1.
- 言論NPO. 2024. 「日中両国は戦略的互惠関係の信頼基盤を失い始めている—第20回日中共同 世論調査分析」. <https://www.genron-npo.net/world/archives/20131.html>.
- 高坂正堯. 2008. 『海洋国家日本の構想』, 中公クラシックス.
-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Brnads, Hal and Michael Beckley. 2022.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Cha, Victor D. 2024. “Eyes Wide Open: Strategic Elite Views of South’s Korea Nuclear Op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47-2.
- Singer, J. David. 1960. “International Conflict: Three Levels of Analysis.” *World Politics*, 12-3.